

# '상하 농어촌테마공원' 개장

(고창군)

### 농민과 소비자의 선순환 구조 창출... 한국형 6차 산업 모델 구축 기대

고창군 상하면에 '농어촌 테마공원'이 정식 개장했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은 22일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유성업 국회의원,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상하농원 박재범 대표와 매일유업관계자, 기관 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개장식 후 테마공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체험광장과 전시관, 친환경농축산물 판매장과 숙박시설을 시찰했다. '고창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민과 정부, 지역자치단체가 함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기획·추진해왔다. 여기에 매일유업이 추구하는 한국형 6차 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아 3만평 규모로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농어촌 테마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창군, 매일유업이 민관합동으로 조성했다.

단순 생산에 머물렀던 농업(1차 산업)의 모습에서 나아가 가공(2차 산업)과 유통, 서비스, 관광(3차 산업)을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형 6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이자 농어촌 테마공원이다. '짓다-놀다-먹다'를 컨셉으로 자연의 건강함을 전하기 위해 농부의 진심이 담긴 좋은 원료를 정직한 생산 원칙에 따라 소비자와 공유하고 올바른 먹거리 교육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할 예정이다. 농어촌테마공원은 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마켓과 함께 지역의 좋은 원료를 먹거리의 가치를 높이는 4개의 생산공방(쌀, 과일, 빵, 발효)을 운영해 고창 지역의 우수한 로컬 푸드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테마공간의 장점을 살린 레스토랑(상하기린, 농일식당, 카페 젤라또)에서는 농민 및 고창에서 나온 지라는 농작물과 제품들로

만든 정성껏 만든 건강한 슬로 푸드(Slow Food)도 맛볼 수 있다. 또, 농어촌 테마공원을 찾는 학생, 가족, 단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교실을 마련해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과 자연의 선순환 사이클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식재료를 키우는 텃밭 정원과 고창의 특성을 살린 4가지 맞춤형 체험교실(소시지, 아이스크림, 밀크빵, 치즈)에서는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동물 농장과 유기농 목장에서는 동물과 자연, 사람이 함께 교감하고 자연 그대로의 순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먹거리의 시작인 수확부터 가공, 유통 및 서비스까지 한번에 경험해볼 수 있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관람객들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읍성 철쭉길 걷어보세요

### 성곽 따라 이어진 오솔길 분홍빛 유혹

고창군 고창읍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고창읍성은 지금 분홍빛 철쭉이 한창이다. 고창읍성 둘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진홍빛 철쭉이 초록의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어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모양상'으로도 불리는 고창읍성은 1453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라도민들이 슬기로 총화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다. 긴 역사만큼이나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고창읍성은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방문객들은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을 따라 '답성놀이'를 즐기며 봄을 만끽하고 건강도 챙기고 있다. 고창군 공영면에서는 '제1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부안면 용산리 북분자클러스터 일원에는 유채꽃도 만발해 화려한 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14억 들여 조림사업 추진

남원시는 건강한 녹색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조림사업은 14억을 들여 155ha에 편백, 소나무 등 13여 수종 12만여본을 심는다.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수 조림 25ha, 재해방지조림 15ha, 콘나무 공익조림 10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리산 둘레길 주변 구간에 산수유, 철쭉 등 지역 특화수종을 식재하는 지역특화조림 50ha,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수·유타우티 조림 45ha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옥정호 외래어종 퇴치 나서

임실군이 옥정호 토종어종 보호와 수중 생태복원을 위해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에 나섰다. 군은 7명의 잠수부를 투입, 물고기 포획용 어창과 유인용 음향발생장치를 사용해 배스 퇴치작업을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3톤(하루 포획량 약400kg) 가량의 배스를 포획했다. 군 관계자는 "새민금 지방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범관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옥정호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를 연차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토종어종 보호 및 수중 생태계 보전은 물론 옥정호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퇴치작업시 포획한 배스는 지역 주민 및 가족수용장 등에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농기센터, '범씨 출아기' 보급

### 2~3일이면 균일하게 출아... 건전묘 생산·적기 모내기로 수량증대 도모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못자리 실패와 묘의 질 저하 등으로 나타나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묘 육성 현장지도에 나섰다. 최근 FTA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과 쌀 소비 부진에 따른 쌀값하락으로 어려운 농촌여건과 맞물리면서 농가의목이 상실되고, 쌀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은 벼 재배단지 작목반, 마을단위 농가경

영체에 건전묘 생산을 위한 범씨 출아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벼 육묘는 파종 후 상자쌓기를 실시하고, 비닐, 부직포 등을 덮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이 경우 일교차가 큰 임실지역은 범씨의 출아가 늦어져 골짜기병, 불균일한 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범씨 출아기 보급을 통해 2~3일 정도면 범씨가 균일하게 출아

되어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육묘 생산은 물론 파종 후 묘판 생리장애 및 병해충 발생 사전예방을 통한 적기 모내기 실시로 수량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출아기 보급을 통해 묘판 뜰고, 입고병, 키다리병 발생을 20%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며, "벼의 건전육묘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송아지 얻은 기쁨 불우이웃과 함께

### 임실 청용면 이순애씨, 민면의 날 행운권 당첨... 20만원 기탁

청용면 중심마을에 거주하는 이순애(77세)씨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청용면에 20만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청용면사무소를 찾은 이순애씨는 "지난 16일 개최됐던 청용면민의 날 행사시 행운권 사은품에 당첨되어 송아지를 얻은 기쁨을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

탁하게 됐다"고 뜻을 밝혔다. 이순애씨는 "행운권 당첨이라는 기쁨 일에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존경을 표하며, 기탁 받은 성금은 어려운 이웃에 빛이 되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지역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적기 5월 10일~20일

### 농기센터, 부화시기 맞춰 농약 10일 간격 2회 살포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지구온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화기가 빨라짐에 따라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의 위험수위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유충 부화기 적기에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 밀도가 높아져 농작물의 피해 확산에 대비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실시하였다. 발견된 갈색날개매미충은 복숭아, 배, 사과, 산수유, 매실, 오미자 등에 발생하며 줄기와 잎을 흡즙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하며 농산물의 상품성과 수량을 감소시키며 발생하면 피해가 크므로 사전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 담당은 "돌발해충 등 병해충의 예찰을 강화하여 사전방제에 힘쓸 것이며, 금년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적기는 5월 1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부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10일 간격으로 2회 농약을 살포해 발생 피해 확산을 조기에 근절하며 해충 방제시 인근 산림지역에도 함께 방제해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임실의료원, 재활의학과 등 신설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의 진료과목을 신설하고 진료에 나섰다. 군 보건의료원은 그동안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산부인과, 한의과를 진료했으나 정형외과와 산부인과는 공동보건의사가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진료가 폐지되고, 재활의학과 및 비뇨기과를 신설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안과는 장비구입 및 진료실 리모델링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초에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며, 그동안 안과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시동

남원시가 지역의 산업여건과 기업 현장에 꼭 맞는 인력 양성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제1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지리산 청정 농특산물 가공인력 양성사업', 4월 제2차 공모사업에 '제너럴바이오(주) 남원 이전'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각각 공모 선정되어 1억 5000여만원의 국비를 확보, 4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너럴바이오(주) 및 20여 개의 지역 식품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리산 청정 농특산물 가공인력 양성사업과 제너럴바이오(주)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오는 5월 말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부터는 서남대학교와 지역 기업체를 오가는 현장 중심 취업교육이 진행되며, 8월부터는 본격적인 취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